

---

---

# 경합하는 ‘혁명전통’

-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

---

---

조 수 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 머리말

- I. 여러 ‘혁명전통’: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
  - II. ‘유일 혁명전통’을 향하여: 전후 민족해방운동사의 재구축과 리칭원
  - III. 배제된 전통들: 망명자가 본 민족해방운동사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762).

● 투고일: 2020. 2. 24.    ● 심사일: 2020. 2. 25.    ● 게재확정일: 2020. 3. 5.

● <https://doi.org/10.31218/TRKH.2020.03.137.125>

## 요약

이 연구는 북한 초기 역사학계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이른바 ‘유일 혁명전통’으로 확립해 가는 과정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신화화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한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에 주목한다. 최창익·리청원 등이 주도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서술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외에도 조선공산당과 조선독립동맹 등 복수의 ‘혁명전통’이 인정되었다. 다만 김일성의 투쟁에 정통적 지위를 부여한 점에서 이들의 역사인식이 현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리상조·김승화와 같이 소련으로 망명한 인물들이 남긴 기술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최창익과 함께 1956년 반김일성운동에 가담한 리상조와 김승화는 망명 후 남긴 글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오류와 한계를 스스럼없이 비판하는가 하면, 여러 민족해방운동 중 하나로 주변화시켰다. ‘유일혁명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인식 차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북한 역사학, 민족해방운동사, 최창익, 리청원, 리상조, 김승화

## 머리말

1950년대는 북한의 역사에서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가능성의 시대이며, 논쟁의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다. 절대적인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이론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며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자 하였다.<sup>1)</sup> 북한의 역사학, 그 중에서 국가적 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 기존 연구는 북한의 민족해방운동사가 “온갖 전통이 망라”된 해방 후와 한국전쟁 시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 시기(1953~55)”를 거쳐, “백가쟁명의 르네상스 속에서 혁명전통이 확립(1956~61)”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다른 연구도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혁명역사 분야에서 “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전통을 확고히 수립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학계 내부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에 둔 일제 시기 공산주의운동사 정리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4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실제 이견과 논쟁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후 비판 내용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민족해방운동사 해석에서 주류적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으

- 
- 1) 김성보, 1999,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352쪽.
  - 2) 신주백, 2003,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12~223쪽.
  - 3) 김광운, 2008,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 혁명역사 연구분야」, 『북한학연구』 4(2), 10쪽.
  - 4) 김재웅, 2015,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역사와현실』 96, 167~172쪽.

로 평가되는 최창익과 리청원의 경우에도 해방 후 시기 발표된 일부 텍스트를<sup>5)</sup> 제외하면, 이들에 대한 사후 비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었다.<sup>6)</sup> 사후에 ‘중과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비판은 ‘오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작업의 측면이 컸다. 따라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상적 궤적의 변화와 표현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이해로 흐를 수 있다. 특히 해방과 전쟁, 사회주의 건설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며 적지 않은 사상적 전환과 굴절을 겪었을 당대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 텍스트에 기초한 분석은 물론, 저자 스스로 가했을 검열과 합리화의 잔영을 어떻게 견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당시 8월전원회의사건 당시 반김일성파에 가담한 두 사람이 사건 이후 소련에서 작성한 두 텍스트에 주목한다. 하나는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당시 소련 주재 북한 대사였던 리상조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이다.<sup>7)</sup> 다른 하나는 고려인 출신으로 건설상을 지낸 김승화가 당 지도부에 의해 강제 유학 조치된 이후 소련에서 발표한 민족해방운동사에 관한 논문이다.<sup>8)</sup> 이 두

---

5) 백남운 외, 1949, 『朝鮮民族解放鬪爭史』, 金日成綜合大學; 리청원, 1947, 『조선근대사연구』, 평양: 조선력사편찬회.

6) 도진순, 1989, 「북한의 중과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 275~280쪽.

7) 리상조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두 종류가 확인된다. 러시아어로 된 편지는 한국어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수정한 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이 조선로동당 측에 실제로 보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보다 뒤에 생산된 러시아어본을 텍스트로 인용한다. 리상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1956. 10. 1.)」, 장학봉 외,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79~313쪽; Ли Сан Чо, Центральному Комитету Труд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리상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1956. 10. 5.)].

8) 김 сын Ха, Великая октябрь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и револю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Всеми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еликой Октябрьск

텍스트는 각기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당의 ‘옳은 노선’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두 사람이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비주류적 시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최창익과 리청원의 텍스트를 재검토하고, 리상조와 김승화의 솔직한 글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텍스트에서 드러난 조선로동당 내 주류와 비주류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보다 큰 차이가 자기 검열의 뒤에 숨겨져 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 I. 여러 ‘혁명전통’: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

북한의 정치권력은 해방 후부터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6년 ‘조선고적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역사박물관과 민족해방투쟁박물관 등을 설립하였다. 1947년에는 북한 최초의 역사 연구·편찬 기구인 조선력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다.<sup>9)</sup> 그러나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된 전근대사 연구에 비해 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는 부진한 편이었다. 조선력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歷史諸問題』에 실린 논문 가운데 민족해방운동사를 다룬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sup>10)</sup>

---

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осква, Академ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при ЦК КПСС, 1957(김승화,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조선에서의 혁명적 운동」,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전세계사적 의의』,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사회과학아카데미, 1957), pp. 441-459.

9) 「8·15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3쪽; 장세윤, 2004,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조선력사편찬위원회 간행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검토」, 『한국사학보』 18, 204쪽.

이는 이 시기 북한 역사학계에 전문연구자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국가 정체성 및 정통성과 직결된 민족해방운동사 연구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열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연합한 양상을 띠고 있던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에서 민족해방운동사 해석은 정통과 비정통을 가르는 현실 정치의 문제였다. 따라서 통사의 편찬과 마찬가지로 개별 연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작업은 당과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10월 북한 내각은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를 채택하고 최근세사를 1949년 3월 말까지, 통사를 12월 말까지 출판하도록 지시하였다.<sup>11)</sup> 그 결과 1949년 10월 조선력사편찬위원회는 북한의 첫 최근세사이자 민족해방운동사 저술인 『朝鮮民族解放鬪爭史』를 출간하였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집필에는 백남운·박시형·유문화·김두용·김광진·김경인·김승화·최창익 등이 참여하였는데, 사실상 최창익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분량을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제5~7장을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장은 각각 1920년대와 3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따른 조선 해방을 다루었다. 즉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서술은 최창익이 혼자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민족해방운동사에 관한 북한 당·정의 공식적인 해석이면서, 동시에 최창익으로 대변되는 조선독립동맹 계열의 인식이 일정하게 반영된 저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10) 李清源, 1948, 「金日成將軍 빨지산鬪爭의 歷史的意義」, 『歷史諸問題』 1948년 第2輯, 윤세평, 「8·15해방과 김일성장군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문제』 1949년 11호 정도를 들 수 있다. 김광운, 앞의 논문, 8~9쪽.
  - 1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決定 第11號, 1948. 10. 2.,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북한관계사료집』 21, 국사편찬위원회, 8~9쪽.

1950년대 중후반 최창익 등 연안계가 숙청되는 과정에서 그의 저술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출간 당시 북한의 공식적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을 대변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근 10년 만에 ‘중파사상’이 반영된 문제적 저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민족해방운동사 이해를 둘러싸고 1950년대 진행된 논쟁의 여러 쟁점과 관련한 내용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서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① 사회주의 사상단체와 조선공산당에 대한 평가 ② 신간회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대한 평가 ③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조선민족해방운동사』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사상단체와 조선공산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조선민족해방운동사』는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 등지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동휘가 이르쿠츠크에서 조직한 한인사회당을 조선인 사회주의 사상단체의 효시로 파악하였고, 이후 이동휘와 한명세 등이 각각 조직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의해 국내에 사회주의 세력이 부식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북성회와 일월회 같은 일본에서 조직된 사상단체도 함께 언급하였지만, 일본을 통한 유입이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영, 정백 등이 발간한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新生活』과 『朝鮮之光』 등이 “초창기 사회주의사상운동에 있어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면서, 자신과 연루된 서울파에서 ML파로 이어지는 그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단체의 조직은 일제 경찰의 탄압 하에서 비밀결사운동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친분관계에 의존한 분파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중파성을 용이하게 산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었지만, 그것이 곧 이 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중파적 한

계’는 아니었다. “당시 조선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연생장적인 초기단계에서 계급진영내에 비록 분과적대립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상 반제반봉건적인 투쟁실천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조직운동을 촉진하였다”고 하여, 초기 사상단체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sup>12)</sup>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코민테른이 조직사업을 직접 지도한 결과, “노동계급의 조직적 토대위에서 역사적인 조선공산당을 창조”하였으며, 그 결과 코민테른의 조선 지부로 승인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 “반제반봉건적인 투쟁실천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조직운동을 촉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당내에서 “종파적 대립이 재현되어 무산계급진영을 정비할 수 없었”던 결과 해소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4개 성상을 경유하는 동안에 조선 민족해방운동진영 내에서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하여 영용한 투쟁을 하”였다면서 당시 운동에서 조선공산당의 의미를 한껏 추켜세웠다.<sup>13)</sup> 조선공산당에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당시 격심했던 분과투쟁과 그 후과에 대해 서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민족해방운동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조선공산당과 관련한 서술에서 언급해야 할 부분은 그 ‘종파적’ 성격에 대한 대목이다. 최창익은 제5장의 결론에서 분과투쟁과 조선공산당운동의 종파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당시 조선 무산계급 진영 내에서 일어난 각계정파와 그들의 호상간의 대립은 일양으로 무원칙한 비맑스주의적인 종파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

12) 백남운 외, 1949, 『朝鮮民族解放鬪爭史』, 金日成綜合大學, 312~319쪽.

13) 위의 책, 319~324쪽.



에 우리는 먼저 조선 무산계급운동의 폐단기에 있어서 동등한 성질을 가진 여러 개의 종파를 산생하게 한 사회적 근거를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sup>14)</sup>

1920년대 분파투쟁은 “무원칙한 비맑스주의적 종파”였다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이며 마르크주의주적인 분파도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1956년 이후 최창익이 숙청되는 과정에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종파유익설’이었다. 위와 같은 서술이 비판의 구실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신간회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신간회가 “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일체 반일 역량을 포용하며 통일하기 위해 분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즉 신간회는 조선민족 일체의 반일 역량을 포괄한 민족통일전선 단체였으며, 조선공산당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허헌, 홍명희 등 주요 간부들이 투옥되고 신간회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지도력도 약해진 틈을 타 김병로와 김성수 등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기회주의적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신간회 지도부를 농단하게 된 후로부터는 혁명적 대중투쟁의 진전과는 무연한 오히려 부레끼(제동기)의 역할까지 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15)</sup>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및 조국광복회에 관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김일성 장군의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무장투쟁 단계에 들어선 역사계단에 있어서 최초이며 또한

---

14) 위의 책, 334쪽.

15) 위의 책, 327~376쪽.

최후까지 계속된 항일무장투쟁으로서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적인 계승 발전을 의미한다.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무장 유격부대는 화북에 있어서의 조선의용군과 함께 조선인민이 낳은 유일한 항일무장대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조국보위의 성세인 조선인민군대의 골간으로 되었다.<sup>16)</sup>

1935년에는 김일성장군의 지도하에 이제까지의 민족통일전선의 경험교훈과 그의 총화로서 또한 세계적규모에서 전개된 광범한 통일전선운동의 일환으로서 역사적인 조국광복회가 창설되었다.<sup>17)</sup>

최창익은 다른 어느 운동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정통”이라는 표현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사용하였다. 민족해방운동에서 정통의 지위는 김일성에게만 부여한 것이다. 조국광복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이 지도한 조국광복회는 그 이전 민족통일전선의 “총화”였다. 당시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한의 선전문화를 감안할 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내각 수상을 겸하고 있던 김일성에 대한 찬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서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간도 일대에서 활동한 김일성이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한 김책, 최용건 등과 긴밀히 연계하였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조국광복회의 정치공작원을 갑산·무산·경성·명천·단천 등 국경도시뿐만 아니라 함흥·홍남·원산·성진·철원 등 공장지대에까지 파견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18)</sup> 이는 김일성이 만주 일대의 모든 무장투쟁을 지도하였거나, 조선 전역에 조

---

16) 위의 책, 393~394쪽.

17) 위의 책, 396쪽.

18) 위의 책, 391~399쪽; 신주백, 1994,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역사와현실』 12, 177쪽.

국광복회의 공작원이 파견되었다는 식의 과장된 후대의 서술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한편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최창익이 참가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대해서는 지면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및 조국광복회와 동렬에 놓으려는 서술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항일전투는 만주에 있어서 김일성장군 빨찌산부대의 영웅적 항일무장투쟁과 함께 일제가 패망하던 최후의 날까지 계속 확대되었다”는 식이었다. 조선공산당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을 할애하여 비중 있게 다룬 반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대해서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절에 포함시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병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은연중에 그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였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대목을 통해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비단 조선역사편찬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공식적 역사 해석일 뿐만 아니라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계라는 정치계파의 해석이 일정하게 반영된 저술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서술 태도는 그것이 편찬된 1949년 당시 북한의 정치 역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 출신,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이어진 국내 활동가 출신,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출신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일성이 유일한 최고지도자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의 유일 권력이 확립된 것도 아니었다. 각 계파는 당과 정부, 군에서 각기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과거 민족해방투쟁 경험은 각기 나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는 유일하게 정통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또한 유일하게 오류나 한계에 대한 평가가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통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계급투쟁과 신간회로 대표되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사실상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주류이자 정통으로 평가한 것이다. 다만 극심한 분파주의와 후기 신간회 활동에서 민족개량주의 노선에 의해 그 헤게모니를 상실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동격으로 서술하였다. 이처럼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운데, 제 세력의 다양한 민족해방운동 경험을 ‘혁명전통’으로 포용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I. 유일 ‘혁명전통’을 향하여: 전후 민족해방운동사의 재구축과 리청원

북한의 초기 역사학은 1952년 3월 27일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역사학연구소로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역사학연구소 산하에는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사료편찬실·철학 연구실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역사학연구소의 상급 기관인 과학원이 설치됨으로써, 학문 연구 기관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sup>19)</sup> 그러나 이때까지도 과학원의 연구 기반은 보잘 것 없었다. 1952년

---

19)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역사과학이 걸어난 자랑찬 40년」(『역사과학』 1988년 3호), 이병천 편, 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296쪽; 이영화, 2007,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 『한국사학사학보』 15, 179쪽.

4월 개최된 과학자대회에서 김일성이 과학원 창립을 제안한 이후 급조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대회 이후 과학원 원사와 후보원사 후보자들을 황급하게 찾기 시작했고, 관련 규정만을 만든 뒤 선언적으로 창설된 기관이 과학원이었다.<sup>20)</sup> 창설 당시 과학원에는 인력과 건물, 설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쟁 시기 전용 공간도 없이 모란봉 토굴, 천주교 교회당, 평양시 당위원회 청사, 내각 방공호 등을 전전하였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연구가 력사학연구소의 주도로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에는 혁명전적지 답사단을 중국 동북 지역에 파견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첫 번째 전적지 조사를 통해 답사단은 각종 문헌과 유물을 비롯하여 빨치산 참가자와 목격자들의 회상기를 수집하였다고 한다.<sup>22)</sup>

1952년 4월 최창익은 『근로자』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찬양하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김일성 동지가 조직한 반일 무장 투쟁을 비롯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인 조국 광복회 운동은 1930년대로부터 력사적인 8·15 해방에 이르는 전 기간을 대표하는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지표로 된다”고 평가하였다.<sup>23)</sup> 이 글이 실린 『근로자』 1952년 제4호

- 20) Г. Е. Самсонова,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главным ученым секретарем Академии наук КНДР членом-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АН ЧАН ДЮ ИКОМ / 19 марта 1955 года /,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8, лл. 140-145[Г. Е. 삼소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과학서기장-과학원 후보원사 장주익과의 대화록(1955. 3. 19)].
- 21) И. С. БЯКОВА,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ученым секретарем Академии Наук КНДР Тянь Дю Иком / 2 марта 1954 года /,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9, лл. 42-45[И. С. 비야코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과학서기장 장주익과의 대화록(1954. 3. 2)].
- 22) 「조선 역사학계가 걸어온 길」(『력사과학』 1960년 6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는 쟁』, 281~282쪽.
- 23) 최창익,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투쟁의 조직 지도자이다」, 『근로자』 1952년 4호, 122쪽.

는 김일성의 40세 생일 기념 특집호였다. 게재된 글 모두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로 채워진 특집호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특집호는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전쟁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24)</sup> 다만 최창익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1930년대로부터 8·15 해방에 이르는 전 기간을 대표”한다고 평가한 서술은 의미심장하다. 민족해방운동 전 시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었다. ‘여러 혁명전통’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었다.

1955년 1월에는 1950년 제19집 발간 이후 중단된 『력사제문제』를 대신한 『력사과학』이 창간되었다. 『력사과학』은 창간사에서 기존의 관념론적·객관주의적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과학적 계급의식, 즉 당파성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긴급한 과제에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시된 ‘긴급한 과제’는 “조선에서의 노예 사회 유무”, “조선 봉건 사회에서의 토지 소유 문제” 등과 같은 조선사에 유물사관을 적용시키는 과제와 함께, “김옥균 일파의 개화 운동”,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만행”과 같은 반침략 투쟁사를 정립하는 과제로 요약되었다. 특히 일제 시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한 과제로는 “김일성 원수의 빨찌산 투쟁과 우리나라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그의 의의에 대한 문제”만을 제시하였다.<sup>25)</sup> 향후 과학원 력사학연구소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는 곧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 연구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

24) 김일성의 40세 생일을 맞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그의 고향 만경대와 항일 전적지 보천보에 기념관을, 최초의 활동지 해산진에는 김일성고급중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로동신문』 1953. 4. 13.;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434쪽.

25) 「조선 력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년 1호, 2~3쪽.

리청원은 『력사과학』 1955년 9월과 10월호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sup>26)</sup> 그는 이 논문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sup>27)</sup> 력사학연구소의 설립 이후 강화된 민족해방운동사에서 김일성 정통론을 체계화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리청원은 머리말에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수립 과정과 그 헤게모니 실현의 다양한 제 광경들과 특수성들을 정당하게 분석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곧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이 30년대 이후 8·15 해방까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실현과 그의 전투적인 당 창건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전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복잡한 력사적 행정”을 밝히는 작업이었다.<sup>28)</sup>

앞서 살펴본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서 리청원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조선공산당이 “소조 형태에서 통일된 당적 형태로 첫 발자국을 내디딘” 데 의의가 있지만, 노동자 농민 계급에 기초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아니라 단지 “크루쇼크(кружок: 소조-인용자)들의 집합체에 지

26) 리청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상)」, 『력사과학』 1955년 9호; 리청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하)」, 『력사과학』 1955년 10호.

27) 리청원, 1955,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28) 위의 책, 5쪽; 「후보 원사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 『력사과학』 1957년 제1호, 91쪽.

나지” 았는다고 평가하였다.<sup>29)</sup> 그는 조선공산당이 조직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 구체적인 서술은 오류와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

또한 그는 조선공산당이 이후 신간회와의 관계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계모니를 전취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에서 부르주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신간회가 조선에서 처음 조직된 반제통일전선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을 결국 소부르조아적 영향 하에 해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30)</sup>

그런데 1920년대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리청원이 최창익과의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당내 분파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정치적 폭압이 격심한 특수한 조건에서 소조주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며 “초기 크루쇼크”의 발생이 불가피하였으며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소조들의 결합체로 출발한 조선공산당은 태생적으로 ‘종파’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조선 사회의 낙후성으로 인해 초기 혁명 운동을 급진적 소부르주아 인텔리 계층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31)</sup> 요컨대 그는 조선공산당을 괴롭힌 ‘종파투쟁’의 원인을 참가자 개인의 권력욕이라든지 노선투쟁과 같은 실천상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던 것이다. 정체성론에 기초한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조선공산당 지도부로부터 ‘종파’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논리였다.

---

29) 리청원, 1955, 앞의 책, 151~154쪽.

30) 위의 책, 159~160쪽.

31) 위의 책, 165~168쪽.



다음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및 조국광복회와 관련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왜곡이 주목된다. 예컨대 “1934년에 이르러 김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의 지도 아래에서 ‘동만반일유격대’와 「남만반일유격대」를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는 진술이나, “투쟁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사상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볼셰위크적 핵심이 김책, 최용건, 김일, 강건, 안길 등 동지들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sup>32)</sup> 이러한 서술과 함께 리청원은 조선 민족해방운동사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김일성의 출현과 그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이 농민을 주력으로 한 무장투쟁을 영도한 것이 곧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수립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932년 이후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건설함으로써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독재정권으로 발전했다고 파악하였다.<sup>33)</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은 민족해방운동사 서술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정통론을 표방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공산당과 신간회에 대한 평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위치에 대한 평가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로당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어가는 정세가 반영된 것이

32) 위의 책, 226·233쪽; 항일무장투쟁 기간은 물론 1940년대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시절에도 김일성은 조선인 유격대 모두를 아우르는 지도자로 추대된 적이 없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대한 세간의 숙칭이었다. 이후 발간된 림춘추의 회고에 따르면 제2군이 중국 동북에서 활동할 때는 동북인민혁명군이라 하였고, 조선에서 활동할 때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 불렀다. 기광서, 1998,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현실』 28, 271~275쪽; 김성호, 2003, 「‘조선인민혁명군’호칭에 대한 일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235쪽.

33) 리청원, 앞의 책, 213~277쪽

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작업은 이미 한국전쟁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김일성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최창익과 전문 역사가이자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소장으로서 당의 공식 역사 편찬을 책임지고 있던 리청원의 입장 차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일제 시기 조선공산당 내 분파투쟁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폭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출발한 당 조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불가피한 것이지만, 당 조직 이후에도 소조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것은 ‘종파주의’를 초래한 조선공산당의 한계라는 것이다. 이 ‘종파주의’가 조선공산당 지도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일치했다. 이처럼 분파와 종파를 구분하고 분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피력한 서술은 이후 전개될 북한의 정치적 과정에서 두 사람을 묶어 매는 구실이 되었다.

### Ⅲ. 배제된 전통들: 망명자가 본 민족해방운동사

최창익과 리청원 두 사람은 북한 초기 역사학의 민족해방운동사 정리를 주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으로 몰락하였다. 특히 최창익은 연안계의 핵심 인물로, 경제정책과 간부정책 등을 둘러싸고 김일성과 대립하였다. 내연하던 정치적 갈등은 1956년 제3차 당 대회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이전부터 연안계가 요구하던 경제정책의 수정과 개인 숭배 청산을 비롯한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문제에서 김일성의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일성은 제3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 조직과 인사를 자파 일변도로 재편하였다. 북한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알려진 1956년 8월전원회의사건은 제3차 당 대회 인사에서 배제된 연안계 등의 불만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sup>34)</sup>

알려진 바와 같이 8월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탄핵하려던 연안계 등 반김일성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중·소의 공동개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1956년 말부터 전 당 차원의 숙청이 본격화되었다. 이른바 ‘반종파투쟁’이었다. 그 유탄은 학계도 피할 수 없었다. 당 위원장 홍락응이 중국으로 망명해버린 김일성종합대학 등에 검열이 집중되었다. 약 3개월에 걸친 당 중앙위원회의 검열 결과 역사학부장 김정도, 세계사강좌장 김현수, 맑스-레닌주의 기본강좌장 송군찬, 언론학부 교원 리동식, 정치경제학부 교원 임해(壬海), 역사학부 교원 손택영, 어문학부 교원 리동식 등을 비롯하여 100명 이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반김일성파를 지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sup>35)</sup>

리칭원도 숙청의 예봉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1920년대 최창익과 함께 ML과에서 활동한 최익한의 사위였다. 최창익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김일성파에 공감했다는 혐의를 쓰고 당 중앙위원회 고급당학교 교장에서 과학교육출판사의 교정원으로 좌천되었다.<sup>36)</sup>

최창익과 리칭원의 민족해방운동사 서술 또한 학계의 재검토 대상이

34) 제3차 당대회에서 8월전원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그 배경으로서 연안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ndrei Lankov,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윤경섭, 2007,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5) 조수룡, 2018,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51쪽.

36) В. К. Лисиков,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директором Высшей партийной школы при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ХО ИКОМ / 7 ноября 1957 года /,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6, лл. 348-349[В. К. 리시코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고급당학교장 허익과의 대화록(1957. 11. 7.)].

되었다. 1957년 12월 12일에서 14일 과학원 력사연구소 철학연구실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발생과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사실상 최창익과 리청원 등의 민족해방운동사 서술을 재검토·비판하기 위한 자리였다. 리청원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은 1956년 10월에 합평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철학연구실장 황장엽이 기조 발제문을 보고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1920년대 조선공산당을 구성한 화요파와 서울파, 북풍파, 서상파 등 모두를 ‘종파분자’로 칭하였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이들은 “사이비 맑스주의자들인 출세주의적 정치 뿌로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노동운동을 지도할 수도, 조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종파유익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조선공산당이 6·10만세 사건 등을 지도한 것처럼 미화하였으며, ML파의 ‘방향 전환론’과 신간회를 찬양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지목한 “종파유익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리청원, 김정도, 허갑 등이었다.<sup>37)</sup>

황장엽의 보고가 끝난 뒤 토론회는 이른바 ‘종파분자’들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 연구사 신남철은 김정도가 러시아 10월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공격했다. 또한 리청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일본을 통해 전파된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비판했다. 최웅철은 김정도와 리청원 등이 신간회를 통일전선체라고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개량주의 단체였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토론회 소식이 실린 『조선과학원 통보』 1958년 1호에는 과학원 원장 백남운의 「과학원 창립 5주년 기

37)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발생과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회」, 『조선과학원 통보』 1958년 1호, 61쪽; 황장엽, 1958,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발생 발전의 특수성」, 『력사과학』 1958년 제1호, 27~28쪽.

38)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발생과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회」, 『조선과학원 통보』 1958년 1호, 62쪽

념 보고」가 함께 실렸다. 여기서 백남운은 “반당 종파 암해 분자의 두목인 최창익을 비롯하여 리청원, 김정도 등이 우리 과학 대렬 내에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로써 이들의 ‘종파성’과 ‘비과학성’이 학계에 공인된 것이다.<sup>39)</sup>

역사학계에서는 김석형이 최창익·리청원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1956년 해임된 리청원의 후임으로 력사연구소 소장에 임명되었다.<sup>40)</sup> 당시까지 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봉건사’가 전문 분야였던 그는 역사학계를 대표하여 이들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할 수 있다. 그는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사상단체’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리청원의 서술에 비판을 집중하였다. 그는 리청원이 사회주의 사상단체를 “사상 단체”와 “개개의 조그마한 소조” 등으로 혼란스럽게 표현하여, ML과 화요회·북풍회 등의 이른바 ‘종파단체’를 ‘마르크스주의적 소조’로 왜곡하려 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41)</sup> 그러나 이는 리청원의 텍스트에 대한 왜곡 또는 몰이해였다. 리청원은 ‘종파단체’를 마르크스주의적 소조로 은연중에 왜곡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명백히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적 소조들이 ‘종파주의적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었다.

김석형의 비판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리청원의 서술에 대해서도 날카롭지 못했다. 그는 리청원이 김일성의 투쟁에 대

39) 백남운, 「과학원 창립 5주년 기념 보고」, 『조선 과학원 통보』 1958년 1호, 9쪽.

40) 송호정, 1997, 「김석형 사거를 맞아: 북한 역사학계의 거두 김석형과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36. 력사연구소장이 리청원에서 김석형으로 교체된 시기는 1956년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력사과학』의 책임편집위원은 1956년 3월호에 리청원으로, 7월호부터 김석형으로 나타난다. 력사연구소 소장은 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의 여파로 교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력사과학』 1956년 2호·4호.

41) 김석형, 1958, 「위대한 강령적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자」, 『력사과학』 1958년 1호, 3~4쪽.

해 구체성이 사상된 추상적인 찬사로 일관했다면서, 무장투쟁이 해외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묘사하여 국내 운동과는 연계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항의 제목을 「1930년대 조선에서 무장 투쟁이 일어 나게 된 조건들」이라고 하여 마치 그것이 해외가 아닌 조선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42)</sup> 김일성의 투쟁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작위적이며, 오히려 비판이 구체성을 결여한 것처럼 보인다.

몇 달 뒤 김석형은 다시 한 번 이들에 대한 비판을 재론하였다. 전에 비해 비판의 구체성은 더욱 떨어졌는데, 그보다 주목되는 것은 1958년 5월에 열린 “조선 근대사, 현대사 및 조선로동당 투쟁사 관계 일군들의 좌담회” 내용에 대한 소개였다. 이 회의에서 김창만은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925년의 조선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당”이었다고 평가하면서,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가혹하지 말고 공정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석형은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견해”라고 언급하였다.<sup>43)</sup> 바로 몇 달 전인 1957년 12월에 황장엽이 1920년대 조선공산당은 “사이비 맑스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며 최창익 등의 서술을 비판한 터였다. 김석형의 언급대로라면 논리적 불일치와 혼란은 최창익과 리청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비판자들이 겪고 있는 셈이었다. 이는 최창익과 리청원에 대한 비판이 그 저술의 비과학성·비역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원된 논리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창익과 리청원 등은 숙청되는 과정에서 ‘종파유익설’과 같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의 저술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42) 위의 논문, 4~5쪽.

43) 김석형, 1958,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정당성과 력사학계의 임무: 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1958년 4호, 12쪽.

않아 보인다. 저술에서 표현된 견해의 상당 부분이 당시의 정치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상수였고, 조선공산당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지식인이 국내 정치 정세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숙청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리청원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을 신화화하는 작업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창익과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 숙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서 다룰 두 망명자, 리상조와 김승화가 소련에서 남긴 글이 눈길을 끈다.

리상조는 이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소련 대사에서 소환되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망명하였다. 그리고 김승화는 8월전원회의사건 직전 당 지도부에 의해 소련으로 유학 조치되었고, 사건 이후 소련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들은 소련에서도 북한의 정치정세에 관심을 두고 나름의 활동을 벌였다. 김승화의 경우 주로 조선 민족해방운동사 등과 관련한 저술활동을 하며 비교적 조용히 생활한 반면, 리상조는 흐루쇼프 등 소련공산당 지도부를 상대로 조선로동당을 비판하고, 1958년 소련 영화대학 유학생들의 망명에 관여하는 등<sup>44)</sup> 반김일성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리상조는 1956년 10월 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8월 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신을 비롯한 반김일성 세력이 해결하려고 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제3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문제들로, 기존에 당내 주류와 대립해 온 이들의 정책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44) А. М. Пузанов,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тов. Ли Дон Генем / 5 февраля 1958 года / , АВПРФ, оп. 14, п. 75, д. 6, лл. 17-18[А. М. 푸자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리동건과의 대화록(1958. 2. 5)].

이 편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소련 외무성 부상 페도렌코에게 전달하였다. 러시아어 번역문으로 58매에 걸친 편지의 요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 ① 인민의 물질적 생활수준 개선과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기존 계획의 재검토
- ②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김일성 개인숭배 청산
- ③ 김일성 개인숭배로 인해 날조된 조선 민족해방투쟁사의 복원
- ④ 인민의 현실과 괴리된 당 선전 분야 오류의 청산
- ⑤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고 있는 아첨꾼들을 지도적 지위에서 제거하는 문제<sup>45)</sup>

그 중 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리상조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 활동에 관한 기존의 역사 서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가 출현하기 전에도 여러 항일운동과 무장투쟁이 있었지만 이들은 무시되고 오직 김일성의 활동만이 민족해방투쟁사를 구성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1940년부터 중단된 것이 이 운동의 중대한 결점이라면서, 이는 투쟁이 광범한 대중과 연계되지 않고 인민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중국에서의 빨치산 투쟁은 인민과 긴밀히 연계하였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하였다.<sup>46)</sup> 즉 자신이 참여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투쟁이 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빨치산 투쟁이 1940년 이후 중단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이 194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은

---

45) Ли Сан Чо, Там же.

46) Там же, лл. 274-276.



연중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보천보 전투와 조국광복회 활동에 관한 사실관계에서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보천보 전투는 단지 빨치산 부대가 일제 주재소를 공격하여 세 명의 경관이 사망하고, 이후 부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인 10명 이상을 사살한 작은 규모의 전투였다. 그러나 이 전투는 박금철, 한상두, 리일경, 하양천, 리청원 등에 의해 과장되었고, 조선 혁명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전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국광복회가 수만 명의 혁명가를 아우르고 조선 전역의 각지에 지방 조직을 건설하여, 조선혁명에서 커다란 지도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한다. 리상조는 조국광복회의 지령에 따르는 활동가의 수는 100명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그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과정과 날조는 잘 조직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가 ‘아침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김일성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갑산체계’란 것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 걸친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와 조국광복회의 활동이 만들어졌다. 조국광복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포함되었다. 리상조가 3차 당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 박물관의 전시가 ‘갑산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물관 관장은 김일성이 이 전시를 보고 만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리상조는 이를 주도한 ‘아침꾼’으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금철, 조직지도부장 한상두, 선전선동부장 리일경, 사회과학부장 하양천, 그리고 력사학연구소 소장 리청원을 지목하였다.<sup>48)</sup> 8월 전원회의에서 ‘종파분자’로 몰린 리상조는 역으로 이들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해치는 ‘아침꾼’이라며 비난하였다.

47) Там же, лл. 277-278.

48) Там же, лл. 278-281.

리상조의 편지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아침꾼’의 한 사람으로 리청원을 언급한 대목이다. 기존 연구에서 리청원은 최창익과 함께 1920년대 ML과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sup>49)</sup> 리상조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민족해방운동사 왜곡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조선독립동맹 시절부터 최창익과 함께 활동하고 반김일성운동에도 뜻을 같이 한 리상조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리청원의 연구와 활동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한편 소련 태생의 고려인 김승화는 북한의 국가 건설을 돕기 위해 소련공산당의 명령으로 1945년 북한에 파견되었다. 한국전쟁 전까지 그는 중앙당학교 교장,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등 교육 분야에서 일하였다. 특히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과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며 근현대사 분야에서 활동하였다.<sup>50)</sup> 전후에는 도시건설상,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건설 사업을 주로 담당하다가, 1956년 3차 당대회 이후 최창익 등 반김일성파와 뜻을 같이 하고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비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반대파의 동향을 미리 파악한 당 지도부에 의해 전원회의 전날 소련 사회과학아카데미로 유학 조치되었다. 그러나 1958년 북한 측의 요구에 의해 아카데미에서 퇴교되었고, 이후 고향인 알마아타로 돌아가 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 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sup>51)</sup>

8월전원회의사건 과정에서 소련으로 돌아가게 된 김승화는 소련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수학하던 중 1957년 간행된 10월혁명 40주년 기념

49) 도진순, 1989, 「북한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 275~280쪽.

50) 이 시기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비평과 서적해제」조선근대사연구, 『근로자』 1949년 10호; 「3·1운동과 그의 역사적 교훈」, 『근로자』 1950년 4호.

51)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тов.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4 февраля по 1 марта 1958 г., АВІРФ, ф. 0102, оп. 10, п. 52, л. 9, лл. 42-4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A. V. 푸자노프의 일지(1958. 2. 14. ~3. 1.)]; 김승화 저, 정태수 역, 1989, 『소련한족사』, 서울: 대한교과서, 317쪽.

논문집에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조선에서의 혁명적 운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다.<sup>52)</sup> 8월전원회의사건에 간여한 김승화가 조선 민족해방운동사에 관한 논문을 소련에서 출판한다는 소식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조선로동당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출판 전 단계에서부터 조선로동당 조직비서가 소련 사회과학아카데미 당 조직 비서를 만나 게재를 막으려 하였지만, 논문은 결국 출판되었다.<sup>53)</sup>

자신을 '종파분자'로 몰아간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찬 리상조의 편지와 달리, 김승화의 논문은 매우 차분하고 건조한 어조를 유지했다. 편지와 논문이라는 형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군인과 학자라는 출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논문에서 김승화는 특정 출신이나 정파에 대한 어떤 명시적 비판도 없이 자신이 파악한 역사적 사실과 분석을 개진하였다. 예컨대 이미 북한에서는 파벌주의로 낙인찍힌 1920년대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도 “소부르주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지적할 뿐, 기본적으로 조선의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sup>54)</sup>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에 관한 서술에서는 더욱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하

52) Kim Sun Hwa, 1957, Великая октябрь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и револю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Всеми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еликой Октябрь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осква, Академ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при ЦК КПСС (김승화, 1957,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조선에서의 혁명적 운동」,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전세계사적 의의』,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사회과학아카데미), сс. 441-459.

53)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заведующим первым отделом МИД КНДР ПАК КИЛЬ ЕНОМ / 22 октября 1957 года /,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6, лл. 335-336 [Б. К. 피메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국장 박길룡과의 대화록 (1957. 10. 22.)].

54) Kim Sun Hwa, там же, с. 450.

였으며, 북만주에는 김책이, 동만주에는 김일성이, 남만주에는 리홍광이 빨치산 부대를 각각 이끌었다고 서술하였다. 이 장을 통틀어 김일성의 이름은 단 한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민족해방투쟁의 주어는 대부분 조선인 또는 조선 공산주의자였다. 조국광복회와 그 10대 강령 또한 김일성이 아닌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것이었다.<sup>55)</sup> 북한에 있던 시절 발표한 글에서 “조선의 로동자 농민,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부대에 직접 참가 또는 그 지도 밑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 투쟁하였다”고 한 서술과는 180도 달랐다.<sup>56)</sup>

논문이 게재되자 북한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1957년 10월 22일 외무상 남일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를 만나 김승화의 논문을 게재한 데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푸자노프는 소련에서 발간된 책에 그의 논문이 게재된 것을 처음 알았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였다. 그는 김승화가 반당행위자라는 어떤 결정도 아직 내려진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sup>57)</sup>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이미 1957년 10월 17~19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승화·박의완 등에 대한 비판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6월 ‘반당그룹 사건’을 겪은 소련공산당도 조선로동당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다. 결국 이듬해 2월 푸자노프는 리동건에게 리상조를 고급당학교에서, 김승화를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각각 내보냈다고 통보하였다.<sup>58)</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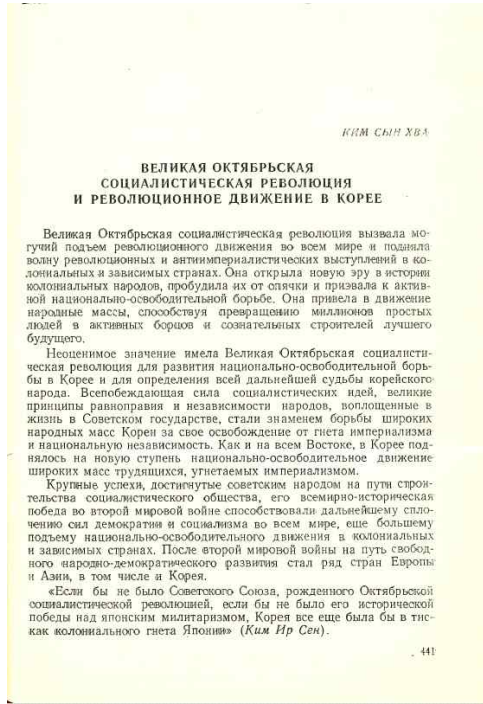
55) Там же, сс. 456-458.

56) 김승화, 「3·1운동과 그의 역사적 교훈」, 『근로자』 1950년 4호, 51쪽.

57)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 по 25 октября 1957 года,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5, лл. 287-2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А. М. 푸자노프의 일지(1957. 10. 1.~25)].

58)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4 февраля по 1 марта 1958 г.,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6, лл. 37-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А. М. 푸자노프의 일지(1958. 2. 14.~3. 1.)].

이에 앞선 2월 6일 『로동신문』에는 김승화의 해당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비판한 김시중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단행본이 아닌 일개 논문을 신문 3개면에 걸쳐 게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김승화의 논문 내용 전반을 비판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역시 1930년대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설명한 부분이였다. 김시중에 따르면 1930년대의 투쟁은 김일성을 선두로 한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무장투쟁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이전의 결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그러나 김승화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 시기의 운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사실상 묵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방 후 국가 건설과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김승화가 특정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그의 종파적 입장과 비과학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하였다.<sup>59)</sup>



〈김승화가 소련에서 출판한 논문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조선에서의 혁명적 운동'(1957)〉

59) 김시중,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8. 2. 6.

리상조와 김승화의 글은 북한에서 소련으로 망명하거나 복귀한 이후 드러낸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이해가 당시 조선로동당의 공식적 견해와 상당히 다름을 보여준다. 이들이 북한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시절 발표한 글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생각의 편차를 읽어내야만 했던 데 비해, 북한과 관계가 단절된 뒤 소련에서 쓴 글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공존했던 해방 후에서 1950년대에 생산된 텍스트라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독해해서는 곤란함을 보여준다. 리상조와 김승화의 사례는 유일한 사상과 ‘혁명진통’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시기에도 북한 지식인들은 이른바 ‘옳은 노선’에 자신의 생각을 구속시키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쳐야만 했음을 반증한다.

## 맺음말

이상에서 최창익과 리청원의 저술을 중심으로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를 검토하고, 이를 리상조와 김승화가 소련에서 집필한 글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는 활자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큰 견해차가 내연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리상조는 소련에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투쟁을 김일성의 것보다 강조할 수 있었지만, 최창익은 그럴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담했던 ML과와 조선공산당의 ‘중과성’을 자기비판해야만 했다.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은 제대로 서술하지도 못한 채 김일성의 옆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는 식으로 자기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분을 식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쓴 리상조의 편지와 달리 최창익의 저술에서는 학자적 엄정함이 유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역사는 다소간 배제되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에서 ‘정통’의 지위를 부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로당파가 숙청된 이후 집필된 리청원의 저술에서 조선공산당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리청원은 조선공산당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에는 식민지 시기 전 기간을 아우르는 ‘유일전통’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의 저술에서 다른 모든 민족해방투쟁은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고, 김일성의 투쟁만이 홀로 빛났다. 그러나 이미 정치화된 저술이었음에도 리청원은 역사적·과학적 접근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의 천형과도 같았던 파벌주의 문제를 그는 식민지 시기 공산주의자 특유의 정체성론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결국 이는 그를 ‘종파유익설’을 유포하는 ‘종파분자’로 몰아매는 족쇄가 되었다.

반면 소련으로 망명한 리상조와 김승화의 글에 나타난 민족해방운동사는 ‘유일전통’의 신화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리상조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 활동에 대한 과장과 신화화가 이른바 ‘갑산체제’에 따른 것임을 폭로하였다. 김승화는 1918년 한인사회당으로부터 흥분도가 이끈 빨치산 투쟁, 3·1운동, 조선공산당, 그리고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명전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만주 빨치산 투쟁을 중국공산당이 주도했음을 밝혀, 김일성의 영도를 탈신화화시켰다. 이들의 글에 비추어보면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옳은 노선’을 의식한 자기 검열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검토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창익, 리청원 등 ML과 출신

과 연안계 인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람이 당대의 민족해방운동사 정리를 주도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박헌영의 콤그룹 등 다양한 출신들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에서 경합한 여러 ‘혁명전통’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북한관계사료집』 2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승화 저, 정태수 역, 1989, 『소련한족사』, 서울: 대한교과서
- 리청원, 1947, 『조선근대사연구』, 평양: 조선력사편찬회
- 리청원, 1955,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 백남운 외, 1949, 『朝鮮民族解放鬪爭史』, 평양: 金日成綜合大學
- 장학봉 외,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 조선역사편찬위원회 편, 1949,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김일성종합  
대학
- 「조선 력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년 1호
-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발생과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토론회」, 『조선과학원 통보』 1958년 1호
- 「후보 원사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 『력사과학』 1957년 제1호
- 「8·15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 김석형, 1958, 「위대한 강령적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자」, 『력사과학』 1958년  
1호
- 김석형, 1958,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정당성과 력사학계의 임무: 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1958년 4호
- 김승화, 「(비평가 서적해제)조선근대사연구」, 『근로자』 1949년 10호
- 김승화, 「3·1운동과 그의 력사적 교훈」, 『근로자』 1950년 4호
- 김시중,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로동

신문』 1958. 2. 6.

李清源, 1948, 「金日成將軍 빨지산鬪爭의 歷史的意義」, 『歷史諸問題』 1948년  
第2輯

리청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상)」, 『력사과학』 1955년 9호

리청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하)」, 『력사과학』 1955년 10호

백남운, 「과학원 창립 5주년 기념 보고」, 『조선 과학원 통보』 1958년 1호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  
한 영도밑에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력사과학』 1988년  
3호), 이병천 편, 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최창익,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투쟁의 조직 지도자이다」, 『근로자』 1952년  
4호

황장엽, 1958,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발생 발전의 특수  
성」, 『력사과학』 1958년 제1호

Ким Сын Хва, Великая октябрьская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и револ  
ю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Всеми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еликой Октябрь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осква, Ак  
адем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при ЦК КПСС, 1957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9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8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5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6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6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 2. 논저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 Andrei Lankov,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기광서, 1998,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현실』 28
- 김광운, 2008,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 혁명역사 연구분야」, 『북한학 연구』 4(2)
- 김재웅, 2015,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역사와현실』 96
- 김성보, 1999,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1950년대 남 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 김성호, 2003, 「‘조선인민혁명군’호칭에 대한 일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 도진순, 1989, 「북한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
- 송호정, 1997, 「김석형 사거를 맞아: 북한 역사학계의 거두 김석형과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36
- 신주백, 1994,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역사와현실』 12
- 신주백, 2003,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역사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 이영화, 2007,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 『한국사학사학보』 15
- 윤경섭, 2007,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

사학연구 제137호(2020. 3)

사학위논문

- 장세윤, 2004,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조선력사  
편찬위원회 간행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검토」, 『한국사학보』 18
- 조수룡, 2018,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  
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Abstract

Contending “Revolutionary Traditions”:  
Reconstruction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istory  
in the Early North Korean History Academia

Jo Soo-ry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im Il-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s so-called Monolithic Revolutionary Tradition (Yuil hyŏngmyŏngjiŏnt’ong) inside the early North Korean history academia. In particular, this study pays close attention to multiple modes of understanding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istory, which were excluded or abandoned in the aforementioned process, rather than to the mythification of Kim Il-Sung’s anti-Japanese movement. In early historical narratives that were shared inside the history academia, led by Choi Chang-ik and Lee Cheong-won, multiple versions of “revolutionary tradition” were recognized such as the Korean Communist Party and the Korean Independence League (Chosŏn dongniptongmaeng), in addition to Kim Il-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e that as it may, historical perception of these multiple traditions were by no means liberal from contemporary realpolitik as they granted legitimacy to Kim Il-Sung’s struggle. This point becomes more evident in comparison to the description of exiles such as Lee Sang-jo and Kim Seung-hwa, who fled to the Soviet Union. Once sided with Choi Chang-ik in the anti-Kim Il-Sung movement in 1956, both Lee Sang-jo and Kim Seung-hwa not only criticized harshly

the errors and limitations of Kim Il-Sung's armed struggle but also degraded it as one of multipl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their articles published after defecting to the Soviet Union. In su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parity in perceiving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istory among the North Korean history academi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RT was much more fundamental than previously estimated.

Keywords : North Korea's historical studie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istory, Choi Chang-ik, Lee Cheong-won, Lee Sang-jo, Kim Seung-hwa